綜合觀光案內센타設置
觀光公社서 T·I·C機能說明會도

韓國觀光公社는 '86, '88의 양대행사를 맞아 내국인 및 외국인에대한 觀光案內와 便宜提供을 위해 지난 4月23日 綜合觀光案內센타(T.I.C)를 개관했다. 이 센타에서는 관광, 교통, 숙박, 항공등의 예약과 발권업무도 취급하며 우리나라의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권역 전시관, 전시장, 상영관 및 서적, 기념품 판매코너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한편 동公社는 5月30日부터 6月27日까지 9次에 걸쳐 각기관 단체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T.I.C기능 설명회를 가졌다. 每日개관 시간은 上午9時부터 下午6時까지. **案內電話 : 757—0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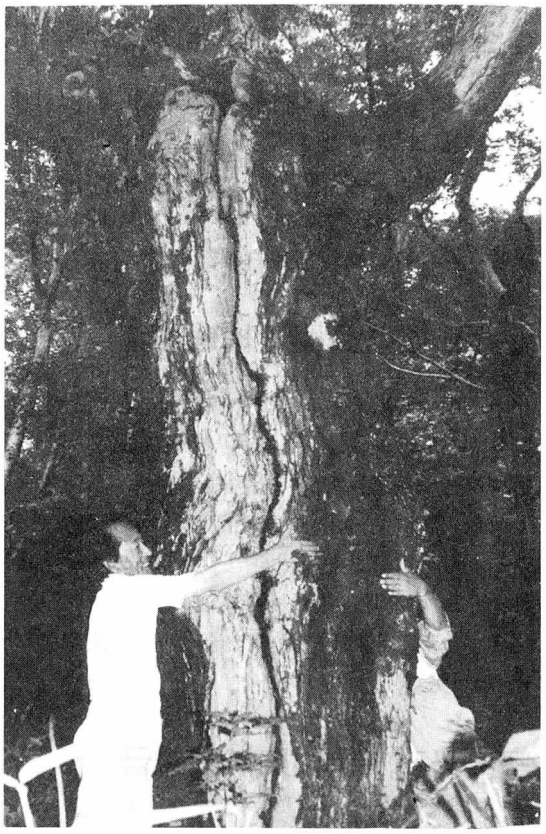
百年된철쭉萬余그루群落地
국립공원 內藏山서 發見

국립공원 내장산내에 수령100년 내외의 철쭉1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 5月11日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사무소(소장 오장수)에 따르면 내장산의 연봉 까치봉(해발 720m)정상에서 남서쪽으로 4km쯤 떨어진 전북 순창군 복흥면 봉덕리 산51번지 일대 5ha정도에 높이 2~3m에 수령100년 내외의 철쭉1만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이 발견되어 학계와 공동으로 조사중이라한다.

800年된 단풍나무도
本會內藏山支部와管理所付發見

한편 지난 7월15일 본회 內藏山 국립공원 支部 (당시 支部長 南杜熙)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 10일 고내장과 원적암 사이에 있는 「사랑의 다리」에서 멀지않은 곳에서 수령 약800년으로 추정되는 自生 단풍나무를 발견했다. 단풍나무로 유명한 국립공원 내장산에는 數十만그루의 各種 단풍나무가 自生하고 있으나 이번 발견된 단풍巨木은 帝王格으로 나무둘레가 3.46m, 높이는 25m나 된다. 이 地域은 일반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며 周邊一帶엔 100年以上된 듯한 단풍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도 확인했다 한다. 내장산 국립공원 본회 南杜熙지부장과 오장수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장, 고광무 내장산 번영회장 및 지부회원 다수의 참가로 발견된 이 사실은 井州市 공보실에도 보고되었다. 단풍군락이 있는 주변에는 웅장한 石築이 精巧하게 쌓여있어 寺址로 보여지기도 했다한다.

원적계곡…내장사를 왼편으로 끼고 돌아 오르면 완만한 경사의 여울과 웅덩이를 이루고 약300m 가량의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계곡을 따라 오르면 유명한 "원적암"과 전설어린 딸깍다리가 있다.



〈寫眞說明 : 南지부장과 鄭사무장이 안아보이는 내장산 단풍의 제왕격인 거목. 주변이 어두워 푸렛시를 사용촬영〉

俗離山에 民俗 박물관과 動物園

忠北道는 5月1日 月岳山과 俗離山에대한 시설계획과 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속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報恩지구는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되 正二品松 주변지에 민속박물관과 동물원을 시설하는 계획과 서원계곡에는 주차장과 휴게소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月岳山 國立公園의 경우에는 土地利用計劃을 확정하고 集團施設 地區로 제원군 한수면 복평리와 덕산面 월악里, 丹陽郡 단양邑 가산里에 각각 1개 지구를 지정하여 공원탐방 거점지화 했고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 지구는 공원보호 구역으로 지정 공원관리 구역으로 편입시켰다.[忠淸日報 5.12字]

小金剛 계곡에 산천어 放流

江原道 명주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5月5日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계곡에 산천어 2천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된 산천어는 삼척군 근덕면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키운 20여 ㎝ 짜리라고. [江原日報]

小白山國立公園候補地踏査

小白山 국립공원 후보지 조사및 基本計劃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후보지 답사를 했다.

이번 후보지 답사에는 건설부 국립공원위원이며 한국국립공원협회이사인 金樟洙교수, 朴炳柱교수, 曺斗鉉 한국산악회 상임이사, 건설부 鄭淳虎 국토계획국장, 자연공원과 孫鶴來 계장이 참가했다.

野營금지・登山路制限시급

(前略) 특히 희귀동식물 자생지및 頂上주변의 야영장 곳곳엔 텐트를 칠 때마다 철쭉 등이 크게 수난을 당하고 있다. 연휴때의 지리산등 서부경남지방 국립공원등 공원지역산은 만원을 이루어 식물보호책이 시급하다. 智異山의 절경과 희귀자생식물이 많은 세석고원~천왕봉사이 9㎞ 등산로 주변은 산장이 不足하여 철쭉사이에 텐트를 치는 통에 자생 분홍철쭉이 매년 수난을 겪고 있는판.

金모씨(47・晋州시신안동・山岳人)는 「지리산 내대리거림~세석고원 사이 8㎞등산로 주변엔 야영지가 없기 때문에 세석고원 山莊에 등산객의 수용이 넘칠때는 철쭉이 밟히고 있어 중간에 야영지를 설정, 세석고원의 야영을 금해야 한다」고 했다.

[6.3慶南新聞]

골치아픈 俗離山 무료入場

入場料수입차질, 道間협의긴요

俗離山 관광객중 慶北화령부터 성불사 입구로 올라오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있어 兩道間의 협의가 아쉽다고 忠北관계자의 설명. 관광객들이 慶比쪽에서 올라올 경우 국립공원 관람료 1천원(성인)을 내지 않아도 되고 문장대 관람료 1百원만 내면 된다. 현재 慶北쪽에서 俗離山뒷산 등산로 入口까지 도로확・포장을 하고있어 완공되면 더욱 합법적인 위법자가 불어갈 전망. 이들 慶北쪽에서 올라온 관광객은 빈차만 속리산 주차장에 대기시키고 문장대를 거쳐 下山후 법주사관광을 마치고 돌아간다고.

[6.17 忠淸日報]

德裕山야영장 利用신청몰려

국립공원 덕유산의 德裕台 야영장 신청이 쇄도 (中略)7월 19일 현재 신청된 것을 보면 20~23일 民正黨 평생동지 수련대회 1만여명, 25~27일 청소년연맹 全北아람단원 2천5백명, 27~30일 누리・한별단원 3천명, 26~28일 서울청년회의소회원 3천명등 2만여명인데 공원관리 사무소측은 이용객 편의를위해 상수도, 화장실, 등산로 정비, 야영지 정리등을 15일까지 완료.

[7.19 全北日報]

태아 性鑑別 3年이하懲役
醫協은 反對성명 發表

保社部가 7月24日 立法예고한 醫療法改正案에 따르면 醫療人은 태아의 성감별을 目的으로 임신부를 진찰·검사할 수 없으며 醫療人과 醫療補助者는 태아 또는 임신부에 對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自然스럽게 알게된 태아의 性別을 임신부는 물론 가족이나 他人에게 알리거나 發表하지 못하도록 規定했다. 이를 違反하면 3年이하의 징역 또는 3百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7.25大邱每日新聞]

한편 大韓醫學協會(회장 文太俊)는 保社部가 立法豫告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7월 26일 오후 각 시도의사회장 및 任員연석회의를 열고 「태아성감별행위는 醫師의 고유한 權限으로 副作用이 있다해서 이를 全面規制하고 위반시에 體刑까지 가하는것은 건전한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反對성명을 발표했다.

[7.29 東亞日報]

濟州의海女, 15년새 61.4%감소

제주도내 海女수는 85년말 현재 7,649명, 지난 15년동안 61.4%가 줄었다. 이같은 원인은 다른 職種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향상됐고 海女 직업에 대한 경시풍조와 후계자 양성이 잘 안됐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濟州에 颱風감시레이다등 建設

지난 7月25日 全學濟 과학기술처장관은 孫亨珍 중앙기상대장·宋南壽 제주측후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내년 濟州도에 시설비 2억6천여만원을 들여 태풍감시용 기상레이다 관측소와 高空관측장비를 西歸浦에 설치하겠다」고 말하고 「또 來年엔 국내최초로 이동식 기상자료 수집장치인 도풀러레이다를 濟州에 배치하여 정확한 기상예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以上7.25 濟州新聞]

大韓料食業中央會總會서
鄭田村 씨 會長選任

'86아시안게임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지난 6月27日 午前 10時부터 워커힐무궁화장에서 개최된 大韓料食業中央會86年度 定期總會任員改選에서 鄭田村씨(47·형제갈비대표)가 압도적인 支持로 선출되었다.

이날 彫刻家이며 本會企劃委員겸 七甲山道立公園支部長인 朴七星씨(中央代議員)등 226名의 代議員이 全國 14萬會員을 代表하여 投票에 參加했다한다. 鄭회장은 同會의 副會長겸 西大門區支部長 平統자문위원, 4.19의거 수습시국강연대학생代表演士등의 경력과 中央大法大, 延大行政大學院 출신의 迫力있는 事業家로 알려졌다.

白鷺떼등배설물로 山林 몸살,
철새. 植物보호 兩立策없나

統營군 한산면 창동마을 앞 無人島는 수년전부터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관광객들로부터 각광. 그러나 최근들어 철새들의 과다한 배설물때문에 수십년된 老松과 각종 희귀식물들이 가지만 앙상한채 말라 죽어간다. 삼천포 학섬의 경우도 84년 이전에는 백로와 왜가리의 배설물로 나무들이 죽자 백로는 사라졌으나 그후 숲은 소생하게됐다. 조류학자인 경남대 咸규황교수는 일부 무인도가 철새의 배설물로 황폐해가는데 대해 「철새들은 10월초가 되면 필리핀등 남쪽나라로 떠나는데 늦게 부화된 새끼때문에 둥지를 틀고 월동하기때문에 식물에 심한 피해를 주는 것 같다」고 했다. 관계당국도 「식물을 보호하자니 철새가 갈곳이 없고 철새를 보호하자니 식물이 수난을 당하니 둘다 보호할 方法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6.5 慶南新聞)

韓人州에 白頭山博物館

中共은 白頭山(中共名은長白山)에 관한 案內와 宣傳을 目的으로「長白山自然博物館」을 吉林省延邊韓人自治州에 設立개관했다고 北京放送이 보도.(7.24內外通信)